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10권 출간 앞둔 만화가 박시백 역사만화 모범사례 만든 선구자



만화가 박시백 씨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그의 책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의 열 번째 권 출간 소식이 늦어진 까닭이었다. 지난해 가을께 펴낸 아홉째 권 '인종·명종 편' 이후 시간이 제법 흘러 어느덧 봄이 훌쩍 가려고 하는데 출판사 측에서는 애초에 발표한 4월에서 두 달을 더 보태 '6월 출간 예정'이라는 말을 전했다. 그나마도 예정이라고 하니 자꾸 조바심이 났다. 작가도 같은 마음일까. 의중을 캐내고 싶은 짓궂은 마음을 품고 직접 만나기로 했다. 한 시간 이십여 분을 달려 박시백 씨의 의정부 집을 찾았을 때 그는 여유롭게 일행을 맞았다.

“이제 반 정도 달려왔네요. 그래서 작업 진행이 더더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10권이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반환점을 찍은 느낌이랄까. 희망차게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니까 힘이 많이 들어요.”

장기 시리즈물이 독자의 지속적 관심을 끌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은 조금 예외다. 20권을 목표로 첫 권이 출간된 이후 권수를 더해갈수록 흥미진진한 스토리 전개와 만화 인물(실존인물들이지만)의 생동감 넘치는 활약상이 펼쳐져 읽는 이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예정한 20권의 절반을 나타내는 숫자 '10'이 지닌 상징성도 출간을 종용케 한다.

아내와 딸 둘, 네 식구가 사는 아파트는 그의 작품이 탄생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일간지 시사만평 코너를 5년간 담당하던 그가 안정된 수입을 포기하고 조선왕조실록의 만화 작업을 시작한 것은 2001년. 그는 당시 “전문 만화가로서 ‘나만의 것’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던 때”였고, 회사 자료실에서 집어든 조선왕조실록은 2년 뒤 ‘그만의 작품’이 된다.

“사실 작업 시작 전까지 실록을 실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분량과 내용을 거의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히 ‘만화로 만들면 재미있겠다’는 생각만으로 회사를 나왔죠. 시리즈 완간이 10년이나 걸릴 줄 미리 알았다면 시작도 안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1년에 4권정도 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최대 7년, 바짝하면 5~6년 생각했거든요.”(웃음)

서른을 넘긴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 그의 열정과 결단력 덕분에 독자들은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걸출한 역사만화를 접하게 됐지만 정작 작가는 회사를 그만둔 날부터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의미 없이 흐르는 시간은 없다고 했던가. 퇴사 후 2년 만에 첫 권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가 만평과 시사만화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작가적 시각과 짜임새 있는 구성력이 역사적 사건과 절묘히 결합한 것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드디어 그는 ‘역사만화가’로서의 힘있는 첫발을 내딛었다.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머릿속 생각과 실제 그림이 다르니까 많이 연습했습니다. 원래는 신문 연재를 염두하고 그랬기 때문에 1, 2권은 시사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단행본의 특징을 살려 3권 이후부터 정사 자체를 소개하는데 치중하고 있죠.”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의 가장 큰 경쟁요소라면 실록의 내용을 정사를 바탕으로 표현하되 작가만의 해석과 시각을 적절히 배합해 담고 있다는 것이다. 작업 시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단계도 단연 실록을 연구할 때다.

“실록 자체가 워낙 방대해서 꼼꼼히 살펴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부할 수 있는 점은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모든 기록을 꾸준히 읽으면서 작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덕분에 어떠한 사건을 접근함에 있어서 그 사건만을 보는 게 아니라 앞뒤 시대 흐름과 연관성을 보는 눈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요.”

만화라는 장르가 대중적이면서도 그 효용성을 온전히 평가받지 못했던 이유라면 ‘가볍다’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동종의 교양만화들이 좋지않은 선례를 남긴 것도 불신의 원인이 됐지만 그는 이런 부정적 통념을 깨고 새로운 교양만화를 개척했다는 평을 듣는다.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소견을 밝히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결국은 쓰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다른 판단 외에 나만의 판단을 어느 정도 넣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래도 이미 나온 해석에는 성이 차지 않으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긴 해요. 과격한 수준까지 가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웃음)

그는 처음 시작할 때와 달리 여유가 많이 생겼다고 말했지만 외출이 잦아 보이지 않았다. 그림 작업 속도는 빨라졌어도 내용 연구 시간이 더 길어져 결과적으로는 늘 평균속도를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장거리 질주. 이제 레이스 절반을 넘으려는 순간이다. 그는 결승점을 통과한 후의 승리감을 성급하게 기대하지 않았다. 아직 더 길고 긴 인생 레이스가 남아있기에 생각도 깊어지는 모양이다.

“철학이 있는 이야기 만화를 그리고 싶은 꿈이 마음 한켠에 있어요. 만화 자체를 정말 좋아하니깐요. 주변에서는 비슷한 기획물을 원하고 있지만 교양만화가 아닌 정통 만화를 그리고 싶은 욕심도 갖고 있습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다른 길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

취재 송보경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